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13

가장 위대한 교회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명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축일 1월 28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신부, 신학자, 교회학자
활동지역 -
활동연도 1224/1225-1274년
같은이름 도마, 아퀴노, 토머스, 토마스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톨릭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로카세카 성(城)에서 아퀴노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퀴나스’는 ‘아퀴노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토마스에게는 누이 하나가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난적이 있어, 토마스는 평생 번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번개, 천둥, 폭풍우로 위협에 처한 사람들과 갑작스럽게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토마스의 부모는 토마스가 다섯 살 때 그를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회 수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베네딕토회 수도원장으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폴리는 아랍과 이탈리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열세 살까지 교육을 받은 토마스는 나폴리대학에 입학해, 기초 학문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나폴리에는 탁발수도회인 도미니코회가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이들의 생활에 깊은 감동을 받아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아들의 성공을 기대했던 부모는 화가 났고, 형들을 보내 토마스를 붙잡아 성에 가두었습니다. 토마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며 여자까지 들여보내 유혹했지만, 토마스는 난로에서 불붙은 장작을 꺼내 들고 그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는 성모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꿈에 천사가 나타나 토마스의 허리에 띠를 매어주었고, 그 후부터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동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누이들은 토마스를 광주리에 숨겨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토마스는 독일의 쾰른대학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별명은 ‘병어리 황소’였습니다. 그만큼 조용하고 겸손하고 진중했습니다. 그를 가르친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토마스를 ‘병어리 황소’라고 부르지만, 언젠가는 그 황소의 울음소리가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그 말대로 토마스는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로서 로마 교황청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책인 『신학대전』을 집필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하려 한 토마스는, 결국 ‘삼위일체, 육화(肉化), 원죄, 창조는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것은 ‘철학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신학대전』이 완성되자 하느님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게 참 잘 썼구나. 그 대가로 무엇을 바라느냐?”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2024년 1월 28일(나해)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수월주보 5면,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사순
제 5주일
2024년
03월 1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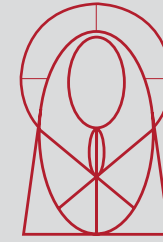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12,24>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예레미야서 31,31-34
화답송 시편 51(50),3-4,12-13,14-15(© 127)



제 2독서 히브리서5,7-9
복음 환호송 요한 12,26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복음 요한12,20-33
성가 입당 117 봉헌 512, 219 성체 175, 170 파견 123

- ✿ 미사지향 (연미사)**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민자(세레나) - 김귀옥(실비아)
 - 이규호 - 이규순(미카엘) 가족
 - 김준경, 김경만 - 가족
 - 한창수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 - 가족

-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어부들의 마을, 성가대
 - 윤 날리 - 가족, 전옥주(글라라)
 - 오애희(올리아나) - 가족, 최정원(레지나)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한상철(빈첸시오), 전옥주(글라라), 최현지(안토니아), 최정원(레지나), 노스브런스익 구역
 - 김삼식(베드로) - 하건철(안토니오), 한상철(빈첸시오), 전옥주(글라라), 최현지(안토니아), 노스브런스익 구역
 - 박영림 - 안현정(소화데레사)
 - 하준석(마태오) - 가족
 - 김우진(요한) - 염 세실리아
 - 김 스틸라 - 곽 엘리사벳
 - 조현실(테오도라), 박병태(가브리엘) - 성가대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3/10 주일 헌금.....\$1,417
 - 교무금..... \$1,330
 - 한상철(3) 유근성(1-6) 하건철(3-4)
 - 김인자(1-6) 배인경(1-3) 최완준(1-3)
 - 김영숙(3-4) 박락준(3) 이종권(1-3)
 - 감사헌금.....故 권숙자(요안나) 유가족 (\$300)

✿ 미사에 참여할 때에는 항상,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잘 읽고 묵상한 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KCB 가톨릭 방송 제이팩과 함께 하는 힐링 음악피정**
- 일시 및 장소: 3월 23일(토) 오후 6시, 베이사이드 한인 성당
 - 3월 24일(주일) 오후 2시, 메이플우드 한인 성당
 - 문의 및 참가비: 718-888-9130, \$20

- ✿ KCB 가톨릭 방송 튀르키예 & 그리스 성지순례**
- 일시: 2024년 9월 30일(월) - 10월 12일(토)
 - 지도사제: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
 - 참가비: \$3,800 (선착순 30명)
 - 문의: 718-888-9130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성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당 내에서는 가급적 정숙하여 주시고, 미사 전에는 핸드폰 전원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성단 문단속을 위해 미사 후 성당 정문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중 성당 창문을 여신 분들은 미사 후에 창문을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올리아나)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올리아나
 - 송희수(글라라) 김삼식(베드로)

- ✿ 2차 헌금**
- 3월 17일: 부활절 꽃 장식
 - 3월 24일: 은퇴 사제 및 수도자
- ✿ 3월은 성 요셉 성월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른 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의 삶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 동안 매 주일 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3/17 청년회 • 3/24 자모회
 - 3/24 주일은 성지주일 행렬 입장이 11시 20분에 시작하므로 십자가의 길을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 ✿ 2024년 성주간 전례 일정**
- 3월 24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3월 25일(성월요일) 오전 9시 미사 (영), 경당
 - 3월 26일(성화요일) 오전 9시 미사(영), 경당
 - 오후 4시 주교좌 성당 성유 축성 미사
 - 3월 27일(성수요일) 오전 9시 미사(영), 경당
 - 3월 28일(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저녁 7시(한영통합), 성당 성체조배 (미사 후 - 10시)
 - 3월 29일(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오후 3시 (한영통합), 성당 십자가의 길 저녁 7시, 경당
 - 3월 30일(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저녁 7시(한영통합), 성당
 - 3월 31일(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 2024년도 교무금 봉헌액을 정성껏 갹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친교 봉사 일정**
- 3/17 피스브릿지 • 4/21 텃거스 • 5/19 노스에디슨+메타천

- ✿ 예비신자 수련식**
- 3/3, 3/10, 3/17 3주간 예비신자 수련식이 주일미사 중 거행됩니다. 부활 성야에 있을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예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신자 명단: 이준원 (대부 김성일 베드로) 주혜운(대모 이서형 요안나)

- ✿ 2024 Bishop's Annual Appeal**
- <Stay with us, Lord: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본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3/8까지 약정된 금액은\$15,377 (목표금액의 41.6%) 입니다.

-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3월 1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3월 1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대상: 단체장 (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 ✿ 레지오 마리아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3월 24일(주일) 미사 후 성당
 - 레지오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 텃거스 구역 모임 (구역장: 윤준희 안드레아)**
- 일시 및 장소: 3월 1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썸머셋 구역 모임 (구역장: 조현실 테오도라)**
- 일시 및 장소: 3월 17일(주일) 미사 후 Flaming Grill & Supreme Buffet

✿ 제1독서: 예레미야서31,31-34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히브리서 5,7-9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복음 12,20-33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래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



에디슨 한인성당 가스펠 톤

